

# 대웅제약 ‘올로맥스’, 식약처서 신규 용량 허가 “라인업 강화로 시장확대 추진”

40·5·5mg 새롭게 허가  
4개의 제품 라인업 확보  
“환자 삶의 질 향상 최선”



대웅제약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맥스’가 신규 용량을 허가받아 라인업을 강화했다.

합했다. 올로맥스는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혈압 강하 및 지질 수치 개선 효과와 더불어 정제 크기를 1cm 미만으로 축소해 환자의 복용 순응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웅제약의 특허 플랫폼 기술인 방출 속도 조절 이중정 제형을 접목해, 성분간 약물 상호작용 없이 체내에서의 흡수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성분별 약물 방출 패턴을 조절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제품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7개월만에 ARB+CCB+스타틴 3제 복합제 시장 3위에 등극하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뤄냈다. 특히, 출시 첫 달부터 8%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출시 6개월 만에 국내 상위 5대 병원 중 4곳에 입성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올로맥스 신규 용량 추가로 기존에 판매중인 올로스타, 올메텍, 올메텍플러스, 세비카, 세비카 HCT 등 고혈압 치료제의 탄탄한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대웅제약이창재 영업마케팅 부사장은 “올로맥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복약 순응도를 내세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중인 차세대 블록버스터 제품”이라며, “이번 신규 용량 추가를 계기로 처방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대웅제약의 한층 더 강화된 고혈압치료제 라인업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웅제약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맥스’가 라인업 강화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로맥스정 40·5·10mg(올메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을 허가받은 데 이어, 지난 19일 40·5·5mg을 새롭게 허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오는 5월 출시될 계획으로, 올로맥스는 기존에 출시된 20·5·5mg, 20·5·10mg과 함께 총 4개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올로맥스는 지난해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복합 개량신약으로, 세계 최초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올메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 계열의 로수바스타틴 성분을 결

# “해열제, 간편하게 짜서 드세요”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새롭게 출시  
포도맛으로 어린이도 쉽게 복용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국내 최초 유소아 대상 임상 3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한미약품의 유소아 해열제 맥시부펜시럽이 ‘짜먹는’ 제형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후대성은 물론 복용할 때마다 일정 용량을 덜어 써야 했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이 이번에 출시한 ‘짜먹는’ 맥시부펜은 열을 낮추는 성분인 이부프로펜의 활성 성분만을 분리한 ‘맥시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맥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보다 적은 용량으로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며, 활성 성분만을 분리함으로써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맥시부펜은 포도맛으로 약먹기를 꺼리는 어린이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다.

맥시부펜시럽은 6mL 소포장 스

틱형(1Box 10개입)으로, 1회 복용시 1포씩(연령 및 체중에 따라 증감) 스틱 그대로 짜서 복용하면 된다. 개별 스틱 형이기 때문에 외출시 또는 응급시에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맥시부펜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상비약이 될 정도로 빠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기존 맥시부펜시럽은 가정 상비용으로, 이번 발매된 맥시부펜시럽은 외출 또는 응급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소비자 성분 관심 ↑... 애경산업 ‘엄마의 선택’ 매출 급증

천연성분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 인기  
엄마의 선택 출시 이후 두 자릿수 성장

천연성분인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과탄산소다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활용도가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식품첨가물이기도 한 베이킹소다는 오염 물질을 흡착하고 연마시키는 추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소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목적 세정 기능 외에도 소비자들의 ‘성분’에 대한 관심 증가가

매출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케모포비아’(화학물질공포증) ‘체크슈머’(Check+Consumer)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몸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좋은 성분’을 찾는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다목적 세정제 브랜드 ‘엄마의 선택’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5% 성장하며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애경산업의 다목적 세정제 브랜드 ‘엄마의 선택’은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로 구성된 엄마의 선택은 14년 출시 이후 16년에 49.7%, 17년에 83.2%, 18년에 16.9%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전자랜드가 지난 21일 벤스코리아와 MOU를 체결했다.

## 전자랜드-벤스코리아 MOU

### 오프라인 협력·판매 채널 다각화 추진

제품판매 위한 홍보·전시 등 협력

전자랜드는 지난 21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전자랜드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 디자인가구 부문 1위인 벤스코리아와 신개념 주거공간 전시매장 형성 및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전자랜드 옥치국 대표이사, 벤스코리아 황지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랜드와 벤스코리아는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

한 홍보 협력, 제품 전시 및 협찬, 온라인 쇼핑몰 연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랜드는 향후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벤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가구들을 가전제품과 함께 전시할 계획이며, 고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구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랜드와 벤스코리아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상호 협력하고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 BGF리테일, 코로나19 대한 가맹점주 지원책 마련

### “안전 최우선... 휴업점포 폐기금액, 본사 100% 지원”

점포 손세정제 지원, 안내 강화  
200개 업체 정산금액 앞당겨 지급

BGF리테일은 코로나19에 대한 가맹점주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CU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의심자 다수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방역이 실시된 점포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후 24시간 휴업을 진행한다.

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품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 제도와 별개로 휴업당일과 다음날 동안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의 폐기금액을 본사가 100% 지원한다.



수칙 안내를 더욱 강화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추가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서는 ‘가맹점주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상생협력펀드를 통한 대출은 2% 금리 이하 혜택이 있다.

BGF리테일은 이날 이근준 사장(사

장) 명의의 서신을 전국 1만 4000여 점포에 전달했다. 가맹점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과 함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평소와 다를 없이 원활한 점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품 공급 및 물류, 전산, 영업 시스템의 제공을 약속했다.

BGF리테일은 가맹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에 대한 지원도 펼친다. 중소협력사 정산대금 조기 지급을 이달 정산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약 200여 개 업체들의 상품 거래 및 물류 정산 대금 약 1500억 원을 평소보다 최대 2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김민지 기자 kmj@